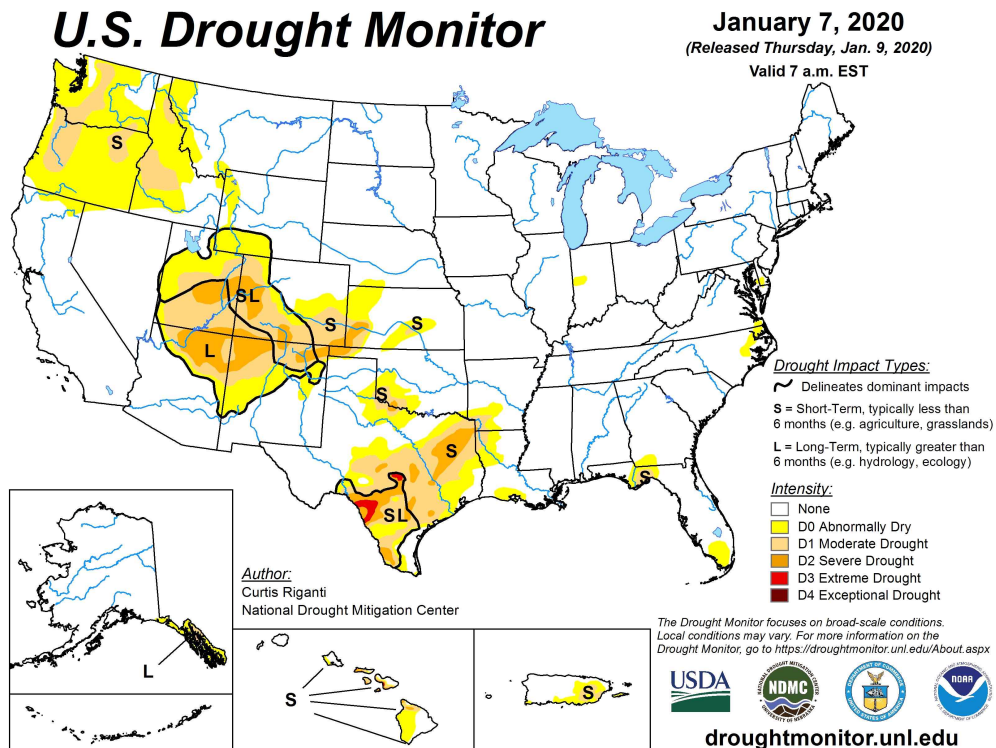


1월 1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2)

□ 미국 기후 현황(1/5~1/11)

주중 후반기에 중부 및 남부 평원의 동쪽 구역에서부터 애팔래치아 산맥까지 겨울 폭풍으로 인해 폭우 (눈과 비), 대규모 홍수, 심한 뇌우 등 다양한 기상 위험이 발생했다. 이미 수분으로 포화된 토양에 폭우가 쏟아져서 중서부에서부터 오대호 아래쪽까지 갑작스러운 홍수와 강의 범람이 발생했다. 실제로 미시시피 중부와 오하이오 계곡 아래층에 걸쳐서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홍수가 발생했다. 실제로, 미시시피의 중부 지역과 오하이오 계곡의 저층에 걸쳐서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홍수가 발생했다.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남동부 평원과 남동부를 가로질러 쏟아진 뇌우는 넓은 지역에 바람 피해를 일으켰고 고립된 토네이도를 생성했다. 한편, 더 추운 공기가 기록적인 따뜻함을 밀어내면서 지난주에 내린 눈이 남동부 평원에서부터 오대호 지역까지의 지역을 덮었다. 이렇게 지난주에는 추워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나라의 동쪽 절반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3주 연속 이어졌다. 동부에서 따뜻함을 보인 주요 지역은 남중부에서부터 오대호 아래쪽까지 뻗어 있으며 이곳의 평균 기온 수치는 평년보다 10-15° F 더 높았다. 반대로, 레드 리버 계곡부터 미네소타 북부까지는 1월 7-9일 및 10-11일 밤에 기온이 -20° F 이하로 급강하했다. 평원은, 1월 11일 기온이 콜로라도 북동쪽과 캔자스 북서쪽 모퉁이처럼 먼 남쪽에서는 잠깐 동안 0° F 이하로 떨어졌다. 그밖에 다른 곳에서는 남서부에서 북부 평원과 중서부 위쪽까지 날씨가 대체로 건조했으며, 때때로 비와 눈 소나기가 태평양 북서부와 북부 로키산맥을 가로질러 내륙으로 퍼졌다.



□ 농업 현황 요약

<내용 없음>

□ 세계 기후 현황(1/5~1/11)

■ 유럽: 북부 유럽 전역에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는 남부 재배 지역의 건조한 날씨와 대조를 이루었다. 대륙의 남쪽 절반에 걸쳐 있는 넓은 고기압으로 지중해 분지 전역은 맑은 하늘과 거의 정상적인 기온을 유지함으로써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겨울 곡물의 발달을 촉진한 반면, 다뉴브 강 계곡 아래쪽에서는 가뭄에 대한 우려가 여전했다. 먼 북쪽은 대서양에서 발생한 일련의 대기 요란이 고기압 주변을 가로지르면서 아주 가변적이기는 했지만 소나기가 중유럽과 북유럽의 많은 곳까지 넓은 지역에 내렸다 (2-50 mm, 먼 북쪽은 지역적으로 더 많이). 이 비는 독일과 폴란드에서 계속되었던 가뭄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렸으며 특히 이 두 나라에 내린 강우량은 10 mm를 넘어 섰다. 반면에 노르웨이 서부와 잉글랜드 북부에서는 175mm에 달하는 많은 홍수가 일어난 것으로 보였다. 북유럽에서는 온화한 해상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평년 조건보다 따뜻한 기온을 유지했고 (평년보다 최대 5° C까지), 겨울 작물의 내한성을 감소시켰으며 주요 재배 지역들은 보호성 눈 덮개가 없는 상태로 놓여 있었다.

■ 호주: 외파로이 내린 소나기 (대체로 5 mm 미만, 지역적으로는 15 mm 이상)로는 퀸즐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스에 가뭄을 의미 있게 해소시켜주지 못했다. 지나가는 소나기가 지역적으로 표토를 적시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그 비가 가뭄 때문에 떨어진 면화, 수수 및 기타 여름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치를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기온은 계속 평년보다 높았으며 (평년 대비 2-6° C), 주 중반에는 최대 기온이 낮은 40도 대로까지 올라갔다. 주 후반에는 다소 시원한 날씨가 그 지역에 스며들면서 들불을 남호주와 동호주로 격리시키려는 노력을 돕고 있다고 한다.

■ 아르헨티나: 중부와 북서부 아르헨티나에 내린 적당하거나 강한 소나기가 이전에 건조했던 농업 지역을 적셔 주어서 옥수수과 콩의 발아와 출현에 필요한 수분량을 올려주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라팜파 동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살타까지 뻗어있고, 동쪽으로 산타페와 엔트레 리오스까지에도 이르는 넓은 지역에 내린 강우 총량은 25-50 mm였다. 이 비는 코르도바 남부와 라 팜파 북동부 주변에서 특히 환영받았다. 차코와 산타페 북부에 집중되어 있는 북동부 면화 지역에서는 다소 건조한 날씨 (총 25 mm 이하의 강우)가 계속되었다. 중부 및 북동부 농업 지역에서 주중 평균 기온은 평년 기준 1° C 이내였고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섭씨 낮은 30도대에서 중간 30도대 사이에 있었다.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를 포함하여 북서부에서는 약간 더 따뜻한 조건 (+2° C의 편차, 낮 최고 기온은 40° C 초과)이 우세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월 9일 현재 옥수수와 콩은 각각 88 및 92 %, 면화는 98 % 심었다. 한편 밀은 작년 속도 (91 %) 보다 약간 앞서서 94 % 수확되었다.



■ 브라질: 대부분의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지역적으로는 심하게 내린 소나기가 콩 및 기타 주요 여름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을 증가시켰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강우량이 총 25 mm를 넘어 섰으며 수많은 지역에서 100 mm 이상을 기록했다. 이 비는 특히 리오 그란데 도 술과 최근 건조와 폭염으로 고생했던 다른 남부 농업 지역에서 환영을 받았다. ‘리오 그란데 도 술’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콩 파종은 1월 9일 현재 사실상 완료되었으며, 옥수수의 74 %가 생식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했고, 콩은 25 %가 개화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했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에도 불구하고 낮 최고 기온은 앞서 언급한 남부 지역에서 때때로 섭씨 30도대 중반에 도달하여 농작물의 수분 수요를 높게 유지했다. 한편, 파라나에서는 1월 6일 현재, 1차 작물 옥수수의 80 % 이상이 생식기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들이 2차 작물 옥수수를 심기 시작하면서 마토 그로소에 내린 비가 토양 수분을 대체로 유리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북동부 내륙에서는 그 비가 폭염 및 건조기 이후에 콩의 활착에 필요한 조건들을 개선했다. 전통적으로 따뜻한 북부 대두 지역에서 기온은 유익한 강우 덕분에 대체로 30도 중반대를 유지했다.